

# 클래식 음악으로 광주민중항쟁 추모

광주시립합창단, 13~14일 문예회관 '레 미제라블'  
광주시향, 18일 문예회관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연주  
무지크바움, 17일 나주문예회관 '5·18 현정음악회'

'클래식 음악으로 추모하는 광주민중항쟁' 5·18 39주년을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추모 음악회가 펼쳐진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오는 13, 1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178회 정기연주회 콘서트 뮤지컬 '레 미제라블'을 선보인다.

1985년 10월 런던에서 초연한 '레 미제라블'은 프랑스 혁명의 저항정신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애를 그린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뮤지컬로 제작한 것으로 '오페라의 유령', '캣츠', '미스 사이공'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로 불리며 지난 2012년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협연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장발장의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소서'(Bringing him home)로 막을 올리고, 판틴의 '나는 꿈을 꿴것' (I dreamed a dream) 등의 솔로곡을 선보인다. 이어 '사람들의 노래가 들리나요'(Do you hear the people sing?),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A Heart Full of Love)이 공연된다.

이날 공연의 지휘를 맡은 황유순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에서 성악과 독일가곡을 전공했으며 뮌헨 방송합창단, 바이올리트 바그너 페스티벌, 에센 오페라극장 등에서 활동했다. 또 함부르크 브람스 콘서트바토리, 에센 국립음대 합창단·오케스트라에서 지휘봉을 잡았다.

일반 1만원, 학생 5000원. 문의 062-415-5203.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5·18 기념음악회: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주제로 343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광주시향 김홍재 상임지휘자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황호준이 작곡한 '님을 위한 서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지는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가 협연하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시벨리우스 콩쿠르, 인디애나 폴리스 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올리비에 샤를리에에는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BBC 필하모닉, 베를린 심포니, 오미우리니폰 심포니 등과 협연 무대를 가졌다.

피날레 곡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이 장식한다. 차이콥스키가 스승 테오도르에게 헌정한 이 곡은 '신의 섭리'를 주제로 장송곡과 같은 1악장에서 행진곡 풍의 4악장으로 나아가며 '역경을 헤치고 승리로' 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해진다.

공연 시작 40분 전에 대극장에서 작곡가 강보란의 공연해설 프로그램 '클래식토크'가 마련된다. 티켓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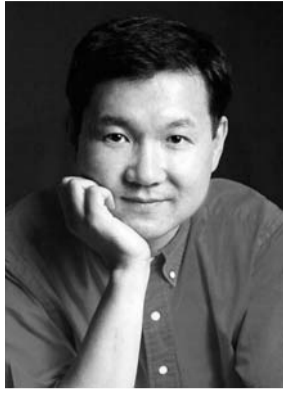
광주시립합창단



김홍재 지휘자



샤를리에 바이올리니스트



김선철 작곡가

만7세 이상 관람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062-524-5086.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은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나주문예회관에서 5·18 현정음악회 '기억의 의무'를 개최한다.

전남도교육청 청소년문화활동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음악과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무대다.

무지크바움(이화) 유스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운명교향곡 1악장'과 요한 슈트라우스 '천둥과 번개 폴카'를 연주하며 김남주 시인의 '학살', 김준태 시인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등 5·18관련

시 낭송이 이어진다. 이어 앞서 낭송한 8개 시에 무지크바움 예술감독 김선철 작곡가가 멜로디를 입힌 곡과 미디어아티스트 이남의 영상을 덧입힌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선보인다.

김정아 한국피아노학회 호남지부 회장의 해설과 함께 소프라노 김진희, 소프라노 신은선, 테너 김백호, 바리톤 염종호, 정인성이 무대에 오르며 호신대 겸임교수 나원진이 피아노 반주를 맡는다.

전석 초대. 문의 061-339-2533, 010-6422-1991, 010-6331-6834.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해설이 있는 음악회 '카레라스 VS 도밍고'

16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호세 카레라스 VS 플라시도 도밍고'가 오는 16일 오후 6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함께 세계 3대 테너로 불리는 호세 카레라스와 플라시도 도밍고를 돌아보는 현정 콘서트,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세계 유수 극장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인 테너 최원휘와 17~18시즌 뉘른베르크 국립극장 주역 테너 김성현이 출연한다. 비제의 '카르메' 중 '꽃노래'를 시작으로 레하르의 '주디타' 중 '친구여,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라나다', 푸치니의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 오페라 곡들을 최원휘의 해설과 함께 선보인다.

'은빛 테너'라 불리는 호세 카레라스는 스페인 출신의 성악가로, 급성 백혈



테너 김성현

테너 최원휘

병 진단을 받았으나 노력 끝에 무대에 복귀해 화제를 모았으며, 1988년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설립해 치료비 지원, 자선 공연을 하기도 했다. 플라시도 도밍고 역시 스페인 태생의 오페라 가수로, 1959년 멕시코 시티 국립 극장에서 데뷔해 지휘자로서도 활약, 클래식계를 평정해 '오페라의 제왕'이라 불렸다. 일반 2만원·청소년 무료. 문의 062-613-8232.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야외공연지원사업' 24일까지 공모

광주문화재단은 지역 거리에 예술 창작 공연 활성화와 야외공연 기반 조성을 위해 '2019야외공연장작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지역 전문공연예술단체 5개 내외를 선정해 단체별 3~4000만원, 총 1억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리예술의 특성을 담은 창작 작품으로 7~10월 중 야외에서 공연 가능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야외공연에 맞게 기획된 작품을 우선 지원하며 실내공연을 단순히 야외로 옮긴 형태는 지양한다. 공연장소는 ▲필수 장소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부대학교 주경기장 혹은 수영대회 선수촌 ▲선택 장소는 '2019광주프린지

페스티벌' 무대, 수완호수공원, 풍암호수공원 등 광주 도심 내 야외무대면 된다. 공연 횟수는 필수장소 2회, 선택장소 5회 이상으로 단체별 총 7회 이상이다.

지원장르는 거리극, 무용, 음악극, 마임, 서커스, 전통연희 등 야외공간에서 실현 가능한 공연예술 작품으로 공연 구성은 공연자 2인 이상, 공연시간은 30분 내외로 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5일 오후 4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설명회와 함께 2019포항거리예술축제 신혜원 예술감독을 초청해 '거리예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문의 062-670-7912. /박성천 기자 skypark@

## 세종 탄신일 기념 학생 글쓰기·대학생 보고서 대회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초·중학생 글쓰기 대회'와 '대학생 보고서 대회'가 열린다.

전남대 국어문화원(원장 손희하 국문학과 교수)은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기념해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대회를 갖기로 했다.

'초·중학생 글쓰기 대회' 응모는 '외국인 친구에게 들려주는 한글 이야기'를 주제로 200자 원고지 5~6매(1000자~1200자) 내의 분량의 글을 제출하면 된다. '대학생 보고서 대회'는 '한류와 한글문화'란 주제에 맞게 에세이 형식으로

200자 원고지 15매(3000자) 내의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모는 오는 23일까지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korjnu@naver.com)에 제출하면 된다.

상상자는 오는 31일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누리집(http://www.korjnu.kr)을 통해 발표되며 수상작은 한글날 행사 때 전시된다. 이와함께 국어문화원은 세종탄신 주간(5월 13일~17일) 동안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세종나신 날과 관련한 전시 행사도 연다. 문의 062-530-0313, korjnu@naver.com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이후성·박재연 듀오 콘서트...쇼팽 서거 170주년 기념

20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이후성·박재연 듀오 리사이틀-An Evening of Chopin'이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쇼팽 서거 17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연주회는 쇼팽과 그의 영향을 받은 리스트의 작품을 중심으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쇼팽의 '서주와 화려한 폴로네이즈 다장조 Op. 3', '첼로소나타 G단조 Op.65', '야상곡 Op.9-2', '야상곡 Op.posth'에 이어 리스트의 '위안 3번'을 첼로와 피아노로 편곡해 무대에 올린다.

조선대학교 교수인 피아니스트 박재연은 서울대와 오스틴 텍사스 대학을 나와 우크라이나 키예프 방송 교향악단, 강남심포니, 광주시향 등과 협연했고 위스콘신 주립대학, 알칸사 주립대학 등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첼로 부수석이자 조선대학교, 전남 예술고등학교에 출강 중인 첼리스트 이후성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김유정, 이승희, 박문경, 틸만 빅, 아민 프롬 등을 사사했다.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10-6331-6834.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후성



박재연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속옷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도레이社 LYCRA  
별다른욕기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